삼성전자 '5조 보험' 가입… 삼성생명 운용 역량 시험대

약정기간 3년, 공시 이자율 4.25%
삼성생명, 본업 넘어 자산운용 강화
해외 자산운용사 지분취득 역량 확장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5조원의 보험료 납입을 마쳤다. 보험료 유입과 함께 계약상 지급 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이번 계약의 이익 기여는 운용 성과와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플래티넘저축보험'의 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9일 공시한 보험료는 5조원이며 약정기간은 3년이다. 공시상 이자율은 '납입보험료 제비용 차감 후 단리환산' 기준 4.25%다.

삼성전자는 거래 목적을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자금운용"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번 거래에 대해 기존에 판매하던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보험 본업과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도 실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험영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다. 회사는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신계약 CSM을 최소 3조2000억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보다 20.4% 증가한 1조7175억원으로, 연초 제시한 최소 목표액의 53.7%에 해당한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아직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미래 서비스 이익을 뜻한다. 상반기 신계약 CSM 가운데 보장성보험에서 확보한 금액은 1조6426억원이다. 건강·종신보험 판매를 통해 미래 이익을 쌓는 영업 기조가 반영됐다.

이번 법인보험의 5조원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신계약 CSM과 측정 대상이 다르다.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은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수취액을 보험수익에서 제외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유입액을 그대로 매출이나 순이익, CSM 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운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 의무를 수반한다. 보험사가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면 운용으로 얻는 수익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익과 사업비·위험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고 이익을 남겨야 한다. 실제 환급 조건에 맞춰 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상반기 연결실적에서는 투자 부문의 기여가 두드러졌다.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보험서비스손익은 53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9% 감소한 반면, 투자손익은 1조8580억원으로 82.0% 늘었다. 투자손익에는 배당금 수익과 자회사·연결 손익 증가 등이 반영됐다. 이런 연결손익은 개별 보험계약의 운용수익률이나 채산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해외 운용 기반을 넓히는 결정도 내렸다. 지난 7월 삼성자산운용이 보유한 뉴욕·런던법인 지분 전량을 취득하기로 했다. 당시 공시 기준 취득 예정 금액은 합계 약 1373억원이다. 회사 전반의 해외 사업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계약기간에 걸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운용수익과 비용, 계약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역량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계대출 빗장 걸었다… 중·저신용자 '한숨'

은행권, 신규 신용점수 6개월째 상승
가계대출 차주 신용점수 평균 928점
시중은행 944점, 지방은행 903점
중·저신용자 1금융권 대출 사실상 막혀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에도 은행권의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 문턱이 낮았던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대출 이용은 사실상 막혔다.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 13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토스·케이)에서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포함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는 928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의 926점보다 2점 올랐고,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9월 한 달 동안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점을 기록했다. 올해 1월의 947점과 비교해 3점 내린 수준으로, 5대 은행의 대출 문턱은 올해 들어 940점대 중반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대 지방거점은행(iM·부산·경남·광주·전북)이 9월 한 달 동안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3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의 895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8점 올랐다.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의 대출 문턱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3개 인터넷은행이 지난 9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3점으로, 지난 1월의 931점과 비교해 8개월 만에 12점 가량 상승하면서 5대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대형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중신용자(800점대)·중고신용자(900점대 초반)의 대출창구로 여겨졌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기준 900점은 과거 신용등급제로 환산하면 최상위 수준인 1~2등급에 해당하는데도, 신용점수 인플레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겹치면서 1금융권 대출 이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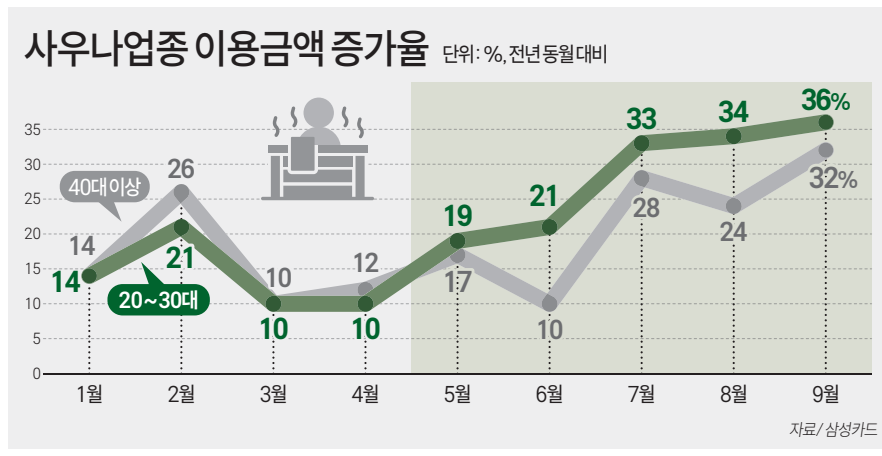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가계대출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도 대출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은행권 전반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5대은행의 가계 연체율은 0.33%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의 0.30%와 비교해 0.03%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1.23%로 0.26%p 급등했다. 인터넷은행들은 3분기 경영실적을 아직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연체율을 유지하며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가 요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문턱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고, 은행들도 우량자산 중심의 영업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태도 강화는 대출 영업 감소를 의미한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은행의 대출 여력은 늘었지만, 건전성 관리를 우선시 하는 은행권의 영업기조에 따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일반대출은 강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기조도 여전해 당분간은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자료/삼성카드

2030세대 핫플 떠오른 '사우나·찜질방'

삼성카드, 소비 트렌드 분석
9월 서울·경기 사우나 이용액 36%↑
40대 이상 증가율 32% 웃돌아
웰니스 트렌드 관리→회복 진화

중장년층이 주로 찾던 사우나·찜질방·쑥뜸 업종에서 최근 2030의 카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휴식과 회복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다. 웰니스 트렌드가 단순 식단, 운동과 같은 '관리'의 영역에서 '회복'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삼성카드 데이터 랩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30의 서울·경기 내 사우나 업종 이용금액 증가율은 지난 9월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이상 증가율(32%)을 웃돈다.

젊은층의 사우나 이용금액 증가율은 지난 5월부터 중장년층을 웃돌기 시작했다. 2030세대 증가율은 4월 10%에서 5월 19%로 뛰며 40대 이상(17%)을 앞질렀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9월에는 36%까지 증가했다. 같은 달 40대 이상의 증가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효소, 쑥뜸 관련 가맹점 이용도 증가세다.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30대 해당 가맹점 이용건수는 지난 6월 1.5배에서 9월 2.6배로 확대됐다. 반면 40대 이상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1.1배로 소폭 증가했다.

젊은 세대에서 식단과 운동뿐 아니라 휴식과 심신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리커버리노믹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다. 리커버리노믹스는 회복을 뜻하는 리커버리(recovery)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다. 사우나와 찜질방 등은 중장년층의 휴식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젊은 층으로 소비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우나 열풍은 남대문 시장 소비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목욕·사우나 용품 구매처로 주목받는 남대문 시장의 20·30대 생활용품 업종 이용건수는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9월 14.8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은 4.8배 늘었다.

반면, 중장년층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40대 이상 고객의 남대문 시장 생활용품 업종 이용건수는 3.2배, 이용금액은 1.7배로 각각 소폭 늘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식단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20·30대의 웰니스 소비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샐러드·포케 등을 판매하는 건강식 전문점의 20·30대 이용률은 40대 이상보다 22%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건강관리 식품 전문몰에서는 젊은 층 이용률이 40대 이상을 87% 웃돌았다.

동시에 젊은 층은 늦은 밤 술자리를 피하고 있다. 올해 1~9월 20·30대 심야시간(22시~3시) 요식·주점 업종 이용건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3년 대비 약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대 이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스포츠 업종에선 젊은 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1~9월 2030 이용률은 20%로, 40대 이상(14%)을 6%p(포인트) 상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핀다, 23일까지 19개 직무 공개채용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이달 23일까지 총 19개 직무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핀다가 저축은행 인수 후 처음 진행하는 그룹 전 직군 공채다. 핀다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인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제품·기술, 보안·개인정보, 준법·법무 등이다. 주요 직군은 ▲준법감시인 ▲AI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 ▲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제품 엔지니어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개인정보보호 담당 ▲법무 담당 ▲경영지원 담당 ▲재무회계 담당 등이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직무 인터뷰, 문화 적합성 인터뷰 순이다.

한편, 핀다에 빠르게 합류하는 인재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핀다는 오퍼레터 수령일 기준으로 4주 이내 입사하는 지원자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이번 채용은 단순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존 금융의 일하는 방식과 고객 경험 자체를 바꿔 나갈 동료를 찾는 과정"이라며 "정해진 방식에 안주하기보다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며,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집요하게 집중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